

동네방네

“생활방역 수칙 철저... 목재체험 하러 오세요”

예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재개
놀이체험실·목재공방 등 구성



예천목재문화체험장. /예천군

예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임시 휴관했던 예천목재문화체험장(효자면 용두리 소재)을 2일부터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본격적인 운영을 재개한다.

예천목재문화체험장 1층은 어린이들이 방문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다양한 목재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목재 놀이체험실과 전시실이 있으며 2층은 목재를 이용하여 직접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목재공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부속 동은 목공기계를 구비해

보다 전문적인 목재체험이 가능한 목공 교육장이 있어 체험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운영시간은 하절기(3~9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동절기(10~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예천(경북)=문봉현 기자

고양시, 스마트 IoT 보행로 우수혁신사례 선정

행안부 지원사업 스마트서비스 분야

고양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스마트서비스분야’ 우수사례에 초등학교 생 보행안전을 위한 ‘스마트 IoT 보행로’가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 우수 혁신

사례 중에서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사례를 선정해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4개 분야 21개 사례가 선정됐다.

스마트서비스분야에서는 민간 전문가·지역주민의 현장 검증과 대국민 온라인심사를 통해 ‘고양시 초등학교 보행안전을 위한 스마트 IoT 보행로’가 선정됐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전남지역 공연계 매출액, 작년 100분의 1

3월 이후 공연매출액 128만원 집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전남지역 공연계가 아사직전에 내몰리고 있다.

1일 전남도의회 김기태 의원(순천·더불어민주당)이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지역별 통계(2020년 3월1일~5월27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본격화한 3월부터 최근까지 국악, 연극, 뮤지컬, 무용, 클래식, 오페라 등 전남지역 공연매출액은 12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연 횟수 3회, 예매 수는 고작 32건에 그쳤다.

작년 같은 기간대비 매출액이 100분의 1, 공연 횟수 20분의 1, 예매 수는 300분의 1로 줄었다. /전남=양수녕 기자

파주시, ‘경기도 환경대상’ 최우수 기관 평가

파주시가 기후대기, 환경안전, 자원순환 등 지자체 환경관리 정책 전반에 관한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제4회 ‘경기도 환경대상’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 환경대상은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보전 및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시·군을 발굴해 시상한다.

환경관련 7개 부문에 대한 정량평가

와 시·군별 특화사업에 관한 정성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을 선정하며 도내 환경 분야 최고 권위의 시상이다.

파주시는 이번 시상에서 7개의 정량평가 전 부문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민선7기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깨끗하고 건강한 파주 만들기’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전남도 ‘국가 면역 치료 플랫폼’ 유치

과기부 주관 공모사업 최종선정
화순전남대병원 내에 센터 마련
면역치료제 국가 컨트롤 타워 역할

전라남도는 암·치매 등 난치성 질환의 차세대 치료백신인 면역치료제의 국가 컨트롤타워를 담당할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유치가 성공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일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한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공모사업에 전라남도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블루바이오, 전남’을 실현하겠다는 민선 7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의 구상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면역치료제 산업은 최근 초고령화 등으로 난치성 질환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165조 원 규모의 거대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며 “우리나라도 이번 사업을 통해 화순백신산업특구를 중심으로 면역치료제 개발과 제품화를 위한 글로벌 경쟁에 당당히 합류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은 국비 230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구충곤 화순군수가 1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사업 유치 확정에 따른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전남도청

억 원 등 총 460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21년까지 화순전남대병원 내에 센터가 들어선다. 면역치료 전문가 70여명과 국내 유수의 대학교·기업·종합병원 등 17개 기관이 참여한다.

참여기관은 전남대와 GIST, 포스텍, 화순전남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주)박셀바이오 등 국내 최고의 면역치료 전문 기관·기업 등이며, 전문가간 협업(오픈이노베이션)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해부터 선제적으로 국비 등 총 200억 원을 투입, 면역치료 벤처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필수 설비·장비가 완비된 면역세포치료제 생산시설 4개소를 벤처창업과 신약개발, 사업화 지원을 위해 올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에 유치한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과 함께 총 660억 원이 투입돼 연계될 경우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면역치료 플랫폼’은 지역 경제에도 효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남도는 이번 사업으로 면역치료 연관 기업 30개사 유치와 1천 1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 항암면역치료제 국산화와 신약 개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형 국가 프로젝트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경북인구 올해만 1.4만 ↓... 청년유출 심각

경북도 일자리창출 등 지원정책 강화

올해 4월까지 경북의 인구가 1만 4000여명 줄어 지난해 줄어든 인구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4월까지 경북의 인구는 1만4782명이 줄었다.

지난해 경북의 인구는 266만5836명으로 2018년 대비 1만995명이 감소한 것보다 더 많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청년유출, 고령화는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노령인구는 213명이 순



인구정책 토론회 /경북도

유입된 반면 젊은 인구의 순유출은 9909명이나 됐다. 출생아(3592명)보다 사망자(6131명)도 더 많아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가 특단의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도는 ▲일자리 창출 ▲문화·복지, 정주여건 조성 ▲경북형 돌봄환경 구축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등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창업 지원과 청년농부 육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해 결혼·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일자리와 주거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아이돌보미 이용 부모부담도 50% 경감시키고 마을돌봄터도 확대하는 등 돌봄환경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안동(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

전남형 긴급생활비, 36만 가구 지원

6만여 가구는 현재 조사 진행 중

전라남도는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을 마감한 결과, 당초 지원계획 대비 4만여 가구가 증가한 36만여 가구에 120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신청 마감일인 지난 5월 29일 기준 약 54만 가구가 신청했으며, 이는 당초 예상 대비 약 170% 가량 증가한 결과이다.

이 중 약 32만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으며, 6만여 가구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다. 최종적으로 당초 계획된 32만 가구 대비 4만여 가구 늘어난 36만여 가구에 사업비가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대상이 증가한 사유는 도민 의견을 수렴해 기준일을 확대하고, 고령 어르신들을 위한 방문 접수, 상품권 지급 등 적극적인 민원대응과 건강보험료 등 공적자료 일괄제공 및 열람으로 서류 간소화 등 긴급생활비 업무담당 공직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라남도는 긴급생활비 지원에서 제외된 18만여 가구에 대해 유선 및 서면(우편)으로 긴급생활비지원 제외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에 따른 구제 여부 등에 대한 사항도 안내했다. /전남=양수녕 기자

경북교육청 초·중·고 대상 진단검사

경북교육청은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해 등교 시작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 주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진단검사 주간 동안 각급 학교는 담임교사의 관찰과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진단검사 도구를 활용해 학생의 학습결손 정도를 파악하고 개별 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선정한다.

진단검사 결과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과 담임교사가 학습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은 3단계 기초학력 안전망을 구축해 촘촘하게 지원한다. /경북=문봉현 기자

Weather forecast for June 2nd (Tuesday) with temperature range of 22-15°C and a rain probability of 41%. Includes a map of South Korea showing weather conditions in various regions like Yeosu, Gwangju, and Seoul.